

STRATEGY 21

통권41호 Vol. 20, No.1, Spring 2017

승자연합과 부(富)의 확장, 그리고 해군력

박 주 현*

I. 개요

II. 승자연합과 확장 개념

1. 집단형성과 승자연합 개념 : 인간본성과 권력구조
2. 확장의 개념과 추동요인 : 내재요인과 외재요인

III. 확장과 승자연합의 모순

1. 확장 전략, 형태, 수단 : 점과 선, 그리고 면의 순차적 구성
2. 모순 발생과 해결 : 승자연합의 가변성 수용

IV. 21세기 부(富)의 확장과 해군력의 역할

1. 21세기 확장 특징 : 물리적 공간 극복과 국내외 승자연합
2. 해군력의 역할 : 승자연합 강화와 비(非)승자연합에 대한 접근

V. 결론

* 해군대령, 해군본부 교리발전처장.

I. 개요

해양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번영을 극대화하려는 인간본성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내외 여건과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맞물려 등장하였다. 생존과 번영은 “생산능력 증대와 교환활동 확대”를 통해 실현된다. 군사력은 생산 능력과 교환활동을 보호하고 그 지속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단이다. 이 글은 “승자연합과 부의 확장(Winning coalition and the expansion of wealth)”이라는 개념으로 해양력을 등장시킨 정치·경제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21세기 해양력을 구성하는 해군력의 역할을 평가한 글이다.

승자연합과 부(富)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생존과 번영에 집착하는 인간본성과 집단형성에 따른 딜레마에 근거한다. 인간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였고 “확장(Expansion)”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생존과 번영을 강화한다. 평화롭게 한 곳에 정착하여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안주할 수도 있으나 인간 자체에 내재된 본성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 기후, 토양, 역병, 침략 등 - 은 그러한 인생 경로를 허락하지 않는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홀로 수행할 수 없는 인간능력, 거주하는 토양과 기후 특성에 구속되는 삶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장 현상이 나타난다. 확장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의지를 공간적으로 타 집단에게 관철시키려는 현상이다.

승자연합은 특정 정치집단 내부에서 지도자의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그룹이다. 승자연합은 집단을 형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농경이 가능한 토지 등 자본의 제한, 가용 에너지의 제한, 취업 제한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된다. 부(富)의 확장은 집단 전체 구성원들 중 승자연합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동인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장기적으로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다. 확장 초기에는 집단과 집단이 폭력으로 부딪히는 “값비싼” 과정을 수반하므로 승자연합 자체가 소멸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富)의 확장이 성공할 경우에 승자연합이 지닌 권력은 강화되지만, 승자연합 구성원들이 교체되거나 승자연합 구성원 수가 변화하는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잉태하는 씨앗이 생겨난다.

부(富)의 확장은 공간적으로 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확장이 쌓이고 겹치면서 “면”이라는 공간을 형성한다. 일개 가족단위에서 씨족, 부족, 그리고 봉건국가 형태로 집

단규모가 확장하면서 특정집단이 점거하고 있던 “점”과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었고 그 선들이 국가와 국가의 연합, 제국, 또는 NAFTA 등과 같은 특정 정치경제 공동체라는 면을 형성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치안과 질서를 바탕으로 면에서는 두 가지 요소 - 각 지역별 비교우위를 지닌 특화된 상품의 존재, 기술개발과 전파의 용이성 - 에 의해 생산력이 증대하고 교환활동이 활성화된다.

인류역사는 확장 시기와 수단, 방법과 형태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해군력은 바다에 접한 집단들이 부(富)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기병과 마차, 도로는 내륙에 거주하는 집단들이 선택하는 합리적인 확장 수단이다. 이들이 침략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가뭄·홍수·역병 등 환경변화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고, 내부 권력구조에 만족한다면 확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강과 해안에 거주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들도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먼 바다로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확장은 승자연합 형성을 둘러싼 집단내부의 권력다툼과 집단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 확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작용경로를 분석하면 지리적 위치가 지니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

해양력이 부(富)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 영토크기, 해안선의 길이, 공업수준, 국민성, 정부성격, 해양 종사 인구, 해상 수송능력, 기지, 해양공동체¹⁾ 등의 조건들이 전제하여야 한다. 위 요소들 중 지리적 위치는 불변의 요소이다. 해양력은 지리적 위치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등장하였다. 특정 지리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는 그 특정 지리에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집단들이 어떤 동인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위 조건들 중 지리적 위치 하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해양력을 뒷받침해주는 육상의 인프라들이다. 즉, 해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해양력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군력에 의한 부(富)의 확장은 두 가지 형태 - 교역대상 개척과 유지, 부(富)를 운송하는 교역항로 보호 - 로 나타났다고 단언한다. 지역과 시기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 형태를 통해 타 집단에게 나의 의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부(富)를 창출하

1)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2010), pp.76~143.

는 구조를 나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본 글 제2장은 승자연합과 확장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인간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했지만 그 대가로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문제, 집단 내 생산물에 대한 분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집단규모가 커질 수록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심각해진다. 승자연합은 이 문제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확장은 총칼을 들고 타 집단의 정치·경제·문화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부터 평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인적 교류의 행위를 포함한다. 사이버 공간처럼 확장 영역은 새롭게 창조되고 있으나 생산력을 증대하고 교역대상을 발굴 및 유지하며, 그 것에서 추출되는 부(富)를 안전하게 옮겨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확장 전략과 수단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구축하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을 형성하며 면 위에 또 다른 성격의 면을 중첩적으로 쌓아 가는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지리의 의미가 재평가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다. 과거에 별 볼 일없는 모래밭이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강남”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이치이다.

제3장에서는 승자연합과 확장 간 내재적 관계를 다루었다. 승자연합은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 권력구조와 소유 및 분배 문제 - 와 외부압력 - 기후변화, 역병, 대규모 이주, 전쟁 등 - 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을 추구한다. 그 과정과 결과는 승자연합의 구성과 규모를 변화시키므로 최초 의도와는 다르게 분열과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환경에서 확장과 관련한 해군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1세기는 국내 승자연합과 국제 승자연합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확장은 면 위에 면을 중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해군력은 단순히 무역항로를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발견되는 확장 잠재력을 현실의 부(富)로 연결시키는 전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 승자연합의 결속을 강화하고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Ⅱ. 승자연합과 확장 개념

1. 집단형성과 승자연합 개념 : 인간본성과 권력구조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라는 인간본성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이다. 그 본성이 왜 존재하며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종교가 담당한다. 이성으로 확인하는 인류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인간들과 인간들, 그리고 인간들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임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무한대 가능성 중 단 하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의한 흔적(결과)만을 남길 뿐이다. 다만, 그 하나의 흔적에 대해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부(富)의 확장”은 역사가 남긴 흔적들을 해석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 하나이다.

확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와 승자연합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여섯 가지 사실들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첫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태어날 수 없으며, 홀로 의식주를 확보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넷째, 인간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인간이 거주하는 각 지역들의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고유의 특화된 생산물이 존재한다. 여섯째, 인간의 집착과 욕심은 “비교”에 의해 강화된다.

위 사실들은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고, 승자연합이 출현하며, 확장을 추구하는 근본원인이다.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의식주 확보와 보호가 용이해 지므로 각 개인들은 혼자일 경우보다 훨씬 나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인들이 공동으로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집단에 속함으로써 집단이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 차이는 집단 내에서 위상과 역할의 차이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할 때 두 가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첫째, 집단 내부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생산물에 대한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 강제로 규제하지 않는 한, 집단 내에서

개인 간 능력 차이에 따른 권력과 분배의 불평등은 필연적 현상이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평등하게 만든다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이 원래 추구했던 목표 - 생존과 번영 보장 - 는 달성할 수 없다.

집단 규모가 가족이나 씨족단위라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생산물을 동등한 기준으로 분배받는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다수가 그 권력에 복종하는 지배-피지배 관계로 수렴한다. 집단의 부와 물리적 힘을 장악한 소수자, 분열된 다수 피지배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정당화해주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농업혁명과 그에 따른 집단규모 확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는 2001년 제시한 정책선택 이론(Selectorate theory)에서 승자연합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정책들이 결정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²⁾ 집단의 정치체제는 그 제도적 형태와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지도자(L: Leader), 도전자(C: Challenger), 전체 구성원(N: Residents), 전체 구성원 중 지도자를 선출할 실질 또는 명목상 자격을 부여받은 유권자(S: Selectorate), 그리고 승자연합(W: Winning Coalition)으로 구성된다.³⁾ 승자연합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도자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실질적 힘을 지닌 그룹이다. 지도자는 잠재적 도전자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승자연합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구성원 중 승자연합이 차지하는 비중 (W/N) 또는 유권자 중 승자연합이 차지하는 비중(W/S)이 지도자가 추진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지도자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정책들은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지도자는 승자연합의 충성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⁴⁾

메스키타(Mesquita)에 의하면 승자연합의 규모와 구성은 정치체제가 지닌 속성에 따라 변화한다. 봉건왕조에서는 왕을 보좌하는 귀족들과 지방영주들(S) 중 잠재적 도전자와 그를 따르는 지방영주들을 압도할 수준의 귀족들과 지방영주들(W)로 승자연합을 구성한다.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독재국가에서는 여당

2) Bruce Bueno de Mesquita,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NY: Hoover Institution, 2003). 본 이론의 초안이 2001년 최초 배포되었고 증보판이 2003년 출간되었다.

3) Mesquita (2003), pp.38~42, 51.

4) Mesquita (2003), pp.65~66.

을 지지하는 정계, 언론계, 군부엘리트들과 금권을 창출해 내는 재계 인사들이 승자연합을 구성한다. 북한에서 승자연합은 당·정·군을 장악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⁵⁾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에서는 투표권한을 가진 국민들(S) 중 정권 창출과 유지에 필요한 유권자 규모(W)가 승자연합이다.⁶⁾

정책은 집단 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공공재(public goods) 공급과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만 배분되는 사적재(private goods) 공급으로 나타난다. 승자연합 구성원들은 공공재와 사적재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반면, 그 외 국민들은 공공재 혜택만 누린다. 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승자연합 구성원들에 대한 사적재 배분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그런데, 승자연합의 구성과 규모는 정치체제와 속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원 배분 행태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W/S 비율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공공재 공급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그 비율이 낮은 봉건왕조나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은 사적재 공급에 집중한다.⁷⁾

승자연합 개념은 확장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창과 칼로 영토를 넓히거나 상품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등 확장 전략과 관계없이 그 결정들은 승자연합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확장이 성공할 경우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배분된다. 규모가 큰 부족사회와 봉건국가에서는 권력에 접근할 자격이 없는 구성원들(N-S)이 생산과 교환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들의 노동과 희생에 비해 미미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사람값”에 대한 차별은 집단규모 대비 승자연합 규모 비율(W/N)이 낮을수록 커져만 간다. 승자연합 규모 비율이 낮다는 의미는 소수 인원으로도 집단 전체를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5) 여타 독재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김일성혈통을 대체할 정도로 당·정·군 간부들(S)의 지지를 받는 잠재적 도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은 충성도에 따라 언제든지 승자연합 구성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다. 김정은을 대체할 잠재적 도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반기를 드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승자연합에 소속되어 부귀를 누리려는 당·정·군 간부들이 많기 때문이다.

6) Mesquita (2003), pp.331~336. W/S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이것이 대중민주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테네는 W/S 비율이 매우 높지만 S/N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7) Mesquita (2003), pp.333~334.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승자연합 규모와 혜택은 반(反)비례 관계이다. 회원이 많을수록 파이가 작아지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W가 크기 때문에 사적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 의욕 약화와 국가경제 침체,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초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사적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지지획득에 유리한 공공재 공급에 주력하고 세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승자연합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북한처럼 W가 작은 체제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지배 엘리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적재 공급에 치중한다.

의미이다. 반면, 씨족사회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집단 규모대비 승자연합 규모 비율이 높을수록 사람값에 대한 차별은 줄어든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권력유지를 위해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2. 확장의 개념과 추동요인 : 내재요인과 외재요인

확장은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의지를 공간적으로 타 집단에게 관철시키려는 현상이다. 확장은 무력에 의한 영토 정복, 강압에 의한 복속, 교역지 확보, 집단이주, 종교·문화 이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집단의 생존과 번영 보장”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 목적은 집단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권력유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정책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권력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들은 확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한 중동 및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서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⁸⁾

확장은 생산과 교환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생산과 교환활동은 생존과 번영의 인간본능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생존이라는 것이 명백한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라면, 번영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후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수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생존 보장뿐 아니라 미래의 여하한 상황에서도 생존을 보장하는 “번영”의 수준까지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번영”이라는 용어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순화된 표현이다. 그 결과 인간 집단은 더 많은 부(富)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된 부(富)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을 추구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필연적이다. 갈등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리바이어던이 부재한 국

8) Sachs, Jeffrey D. and Warner Andrew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398*, (1995).;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no. 4 (2001).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재 공급대신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재 제공을 늘린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이 낙후되고 정치권력의 비민주성이 강화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나타난다.

제사회에서 국익극대화를 위한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가 주장하는 “강대국정치의 비극”이 성립한다.⁹⁾

생산증대와 교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과 “특화” 개념이 필요하다. 집단구성원들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물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생산자들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금을 높이거나,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권을 말살한다면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노동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세금 수준을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화”는 교환의 기본 조건이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 서로 다르듯이 지역마다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의 특화가 발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교우위에 의한 교환활동이 가능하다. 각 지역들 간 교차 무역을 통해 생산물의 가치가 증폭되며 부(富)가 확장된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교환활동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특화된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다.¹⁰⁾

확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집단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내재요인, 집단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외재요인으로 구분한다. 농경사회의 경우 내재요인은 인구증가이며, 유목사회의 경우 목축에 필요한 초원이 내재요인이다. 외재요인들은 기후변화, 대규모 이주, 역병, 침략 등이다.¹¹⁾ 이 요인들은 생산과 교환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함으로써 확장을 촉발시킨다.

농경사회에서 인구는 곧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본이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단체가 출현하고 주변지역으로 영토를 확산하게 된 주원인은 인구증가이다. 농업혁명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잉여생산물 증대를 초래하였고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부수적으로 뒤따랐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인구증가는 농경에 필요한

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orton Company LT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0) 안재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서울: 나남, 2013), pp.19~22, 32~34.

11) 이언 모리스(Ian Morris)(저), 최파일(옮김),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서울: 글항아리, 2013), p.50, pp.317~319, 336~338, 417~420, 447~448. 이언 모리스는 국가실패를 포함하여 목시록의 다섯 기수라 칭한다. 인류역사에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21세기에도 중동 난민유입과 기후변화문제는 세계 정치경제 지형을 흔들어 놓고 있다.

노동력을 공급하지만 소비증가도 동반한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분배할 토지는 줄어들고 사람값(노동비용)은 싸지게 된다. 그 결과 권력을 쥔 계층중심으로 토지소유가 집중되며 다수 피지배층은 소작인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관개시설 구축, 품종개량, 재배기법 개발 등에 의한 농업생산량 증대로 소비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단 내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지배-피지배 계층 간 반목이 심화되어 중국에는 승자연합의 붕괴를 촉진한다.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은 권력유지를 위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힘이 약한 타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농토를 정복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나눠주거나, 지역마다 특화된 농산물을 교환하여 비교우위에 의한 상행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후자를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하다. 생산물의 교환행위, 즉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무력에 의한 안보와 치안유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교환행위의 조건 - 지역 및 시장 개방, 교환 물품, 교환 방법 등 - 을 강요하기 위해 평화적 교섭보다 무력이 더 필요하다.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원의 분배를 위해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후 군사력의 역할은 유리한 교환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쟁은 값비싼 도박이다. 승리했을 경우 승자연합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패배했을 경우 권력상실로 이어지며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는다.¹²⁾ 또한,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증대하고 인력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일정기간 생산능력을 스스로 저하시키게 된다. 지속적으로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전쟁에 의한 확장은 단기간에 그친다.¹³⁾

몽골을 위시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유목사회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적으며 인구 증가속도가 완만하다. 유목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니라 소와 말 등 축산이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초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유목집단은 태생적으로 축산을 위한 초원지대를 따라 늘 이동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 과정에서 초원의 점유권을 두고 타 유목집단과 충돌이 불가피 하다. 역사는 유목집단이 초원지대를 벗어나 농경사회로 확장을 선택하는 것은 부족 간 통합을 통해 규모가 커지게 된 이후임을 보여준다. 집단 구성원들의 숫자가 증대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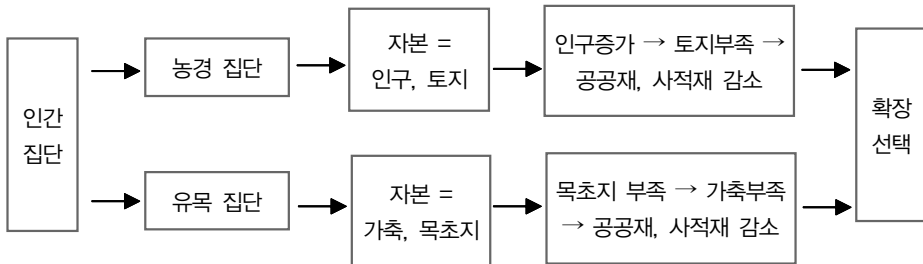
1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Randolph Silverson, “War and the Survival of Political Leader: A Contemporary Study of Regime Type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merica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1995), pp.841~855.

13)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출판, 1996), pp.88~97, 113~120.

라 그들의 생존과 번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즉, 부족의 통일은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확장을 촉진하였다. 유목민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농경사회에 대한 약탈 후 도망이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규모가 크다면 정복 후 통치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외재요인들은 상호 연쇄적인 관계를 지닌다. 어떤 요인이 우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발생이 다른 요인의 발생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식량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빈곤의 나락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이주를 촉발시킨다. 대규모 이주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집단 간 마찰과 전쟁을 유발한다. 전쟁은 또 다른 대규모 이주를 연쇄적으로 촉발한다. 시리아 사태에 따른 중동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또한, 전쟁과 이주, 교환활동은 특정 지역에 머물던 질병을 타 지역으로 전파시킨다.¹⁴⁾ 이주와 전쟁이 점철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지식개발과 개발된 지식의 전파도 활발해 진다. 내재와 외재요인 단독, 또는 복합에 의해 집단은 확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림 1〉 농경과 유목 집단 확장선택 동인의 차이점



14) 모리스 (2013), pp.417~420, 447~448.

Ⅲ. 확장과 승자연합의 모순

1. 확장 전략, 형태, 수단 : 점과 선, 그리고 면의 순차적 구성

확장은 집단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시작된다. 확장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는 무력을 사용하여 타 집단의 영토와 자산 등 소유물을 갈취하는 전략이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재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타 집단이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전쟁비용은 증대한다. 승리한 이후에는 피정복 집단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정복집단의 규모가 작다면 몰살하거나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중국처럼 규모가 크다면 해법은 복잡해진다. 결국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다른 확장을 추구하거나,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붕괴하는 수순이 기다린다.¹⁵⁾

둘째는 회유와 타협으로 타 집단과 생산물을 교역하는 전략이다. 무역과 상업의 장려함으로써 부(富)의 증대효과를 추구한다. 전쟁에 수반되는 위험성 - 전쟁비용, 패배 가능성, 승리했을 경우 통치문제 - 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확장을 일으킨 내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역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강요하지 못할 경우에 타 집단의 부(富)를 더 높여 줄 수도 있다.¹⁶⁾

역사적으로 확장은 위 두 가지 전략이 복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최초에는 무력사용을 위협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타 집단의 영토와 자원을 탈취하였다. 그 이후 확장된 영역에서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과 상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부(富)를 증대시켰다. 무력을 동반하였기에 무역과 상업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 전략은 지배 집단의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 부(富)의 원천을 안겨준다. 첫째, 정복한 영토와 자원을 활용하여 부(富)

15) 농경사회에서 인구와 식량 간 내재적 관계는 John R Weeks, *Population* (Wadsworth Publishing, 1996), pp.462~471, 참조

16)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18-19세기 영국의 對중국 무역적자이다. 아편전쟁은 자유무역 수호라는 명분으로 무력에 의해 무역조건을 바꾼 사건이다.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pp.262~265, 283~286.

를 창출한다. 더 많은 농경을 하고 자원을 판매할 수 있다. 봉건시대 각 지역을 장악한 봉건영주들은 휘하 기사들에게 나누어 줄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¹⁷⁾ 둘째, 피지배 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이 증가함으로써 세수가 증대한다. 셋째, 무역과 상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세수를 증대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관세, 성문통과·도로·교각·수로 사용에 따른 세금, 그리고 보호비 명목의 갈취도 포함한다. 지배 집단은 합병된 영토에서 피지배 집단을 노예로 착취하는 것 보다는 그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생산과 교환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¹⁸⁾

이렇듯 확장은 집단들이 거주하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이 다른 점들과 연결됨으로써 각 점들이 상호 의존하는 “면”을 창출한다. 각 선들은 교역을 연결하는 단선의 교통로에서 타 점들과 연결되는 복선의 교통로, 그리고 중간 상업지대로 성장한다. 지배 집단은 원활한 교역을 위해 각 선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쌓이면서 면내에서 모든 객체들의 활동을 조정, 규제하며 면이 외부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다.

확장은 그 과정에서 지리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동유럽 주요 도시들 - 빈, 찰스부르크, 부다페스트 등 - 은 과거 로마시대 국경선 전초기지로 건설한 촌락들이다. 점과 점을 연결하기 이전에는 주목받지 않던 특정 지리의 의미가 확장을 통해 재발견 되었다. 바다를 통한 확장도 특정 지리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해양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에서 항구는 무역과 상업, 정치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한다. 그러나 통제권을 상실할 경우 항구는 쉽게 적의 공격에 노출되므로 정치·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 워싱턴, 런던, 파리, 로마, 베이징, 서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치 중심지인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국가발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바다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어촌에 불과하던 항구들이 대규모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여 안정적인 국제 통항질서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확장의 수단으로 기동력은 필수이다. 해양으로 확장은 함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육상으로 확장은 기마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17) 이언 모리스(Ian Morris)(지), 김필규(옮김), 『전쟁의 역설』 (서울: 지식의 날개, 2015), pp.211~219.

18) 데이비드 랜즈(David S. Landes)(지), 안진환·최소영(옮김), 『국가의 부와 빈곤』 (서울: 한국경제신문, 1999), pp.71~78.

타 도시국가들과 경쟁에서 생존에 필요한 부(富)를 창출을 위해 지중해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바다를 통해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무역을 활성화시켰다.¹⁹⁾ 육상을 통한 도시국가들 간 교역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무력으로 복속시키지 않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발칸반도 내 도시국가들 간 거래에서는 생산 동기를 자극하고 부(富)를 확산시킬 수 있는 “비교우위에 의한 교역”이 성립하기 어려웠다. 반면, 해상을 통한 식민지 항구건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집단들과 교역 뿐 아니라, 내륙에 추가적인 식민지 건설을 위한 거점지로 활용되었다. 최악의 경우 식민지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탈출하기도 용이하였다. 중세시대에 북유럽 바이킹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 규모가 유럽의 봉건 왕국들 보다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다. 약탈 대상지를 선택하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기동력을 지녔기 때문에 봉건왕국들이 대응하기 곤란하였다.²⁰⁾ 유럽의 중세 봉건제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산물이다. 각 지방영주들이 왕과 봉신관계를 맺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양성하여 자기 영역을 책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²¹⁾ 마찬가지로 흉노, 거란, 선비, 튀르크, 몽골, 여진 등 중국 주변의 기마 집단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수적 우세가 아니라 기동력과 결합된 군사력 운용전술 때문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교체는 내부요인을 극복하는 확산에 실패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권력이 약화되거나 중국 주변 기마집단들이 통일된 집단을 이루어 외부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확장이 범세계적 차원의 “면”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대항해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발생했던 역사상의 주요 확장들 - 고대 중국의 확장,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의 확장, 그리스와 로마의 확장, 게르만 부족들의 확장, 바이킹과 마자르 족들의 확장, 이슬람과 몽골의 확장 - 등은 모두 물리적 영토를 확장하고 그 이후 확장된 영역에서 교환활동이 활성화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15세기후반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해양을 통해 추진한 확장은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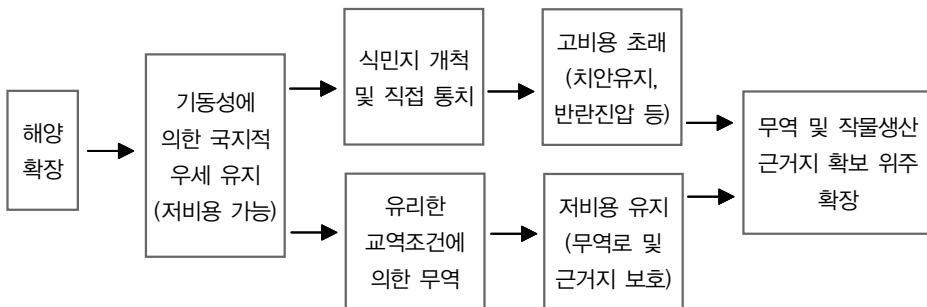
19) 데이비드 아불라피아(David Abulafia)(저), 이순호(옮김),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년의 문명사』 (서울: 책과 함께, 2011), pp.148~172.

20)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저), 김효정·최병진(옮김), 『중세1』 (서울: 시공사, 2010), pp.228~233.; 페르디난트 자임트(Ferdinand Seibt)(저), 차용구(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서울: 현실문화, 2013), pp.364~365.

21)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안두환(옮김), 『유럽사 속의 전쟁』 (서울: 글항아리, 2015), pp.14~22.

하지 않게 영토 확장보다는 무역을 통한 부(富)를 획득하는 확장이 되었다. 멕시코와 페루 정복처럼 물리적 영토를 획득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과의 접촉은 무역 근거지를 확보하고 무역의 독점권을 유지하며 무역로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당시 함선들이 “거리”에 따른 투사 능력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육상에서의 확장여건이 해양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즉, 확장전략의 수정은 물리적 투사능력의 한계와 육상에서의 확장여건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림 2〉 해양 확장 형태의 선택



물리적 투사능력 측면에서 15세기 당시 유럽 각 국가들이 보유한 범선은 바다 건너 타 집단의 영토를 정복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많은 병력을 태울 수 없었으며, 화포는 비싸고 귀했으나 그 성능은 기대치에 못 미쳤고, 항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원하는 만큼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없었다. 당시 서유럽이 지닌 총과 화포의 성능은 현지 전투력을 상쇄할 만큼 우위를 점하지 않았다.²²⁾ 이로 인해 타 집단들과의 접촉 결과는 교역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지적인 영토를 점령하거나 허가받는 형태로 나타난다.²³⁾ 스페인의 멕시코와 페루 정복은 유럽인이 옮겨간 전염병과 현지 부족들 간 분열 덕분에 이루어 낸 예외적인 사례이다.²⁴⁾ 18세기 무렵에 서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리한 교역조건을 강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지 세력의 분열과 더불어 물리적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범선과 화포의 능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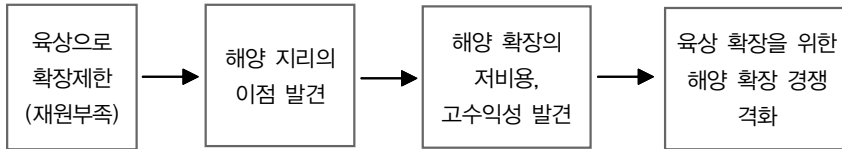
22) 주경철 (2008), pp.200~218.

23) 주경철 (2008), pp.51~62.

24) 재레드 다이아몬드 (Jared Diamond) (저),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1999), pp.307~313.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거리”가 부과했던 확장의 제한점이 극복되었다.²⁵⁾

〈그림 3〉 해양 확장의 배경



육상에서 확장여건도 바다를 향해 확장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두 가지 여건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육상에서 확장이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이다. 도시국가들이 상호 경쟁하던 기원전 10세기 무렵의 그리스와 봉건 왕국들이 상호 경쟁하던 15세기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를 압도할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했다. 전쟁은 각 국들의 재원동원 능력 제한으로 인해 그야말로 “제한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은 육상으로 확장을 “고비용, 고위험, 저수익” 행위로 만들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각 봉건 왕국들이 부과하는 세금과 정치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교역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동양의 희귀한 작물과 물품들은 높은 비교우위 가치를 지녀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²⁶⁾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제국이 멸망(1453년)한 이후 이슬람과 지중해 상인들에 막힌 교역로를 뚫기 위해서는 대서양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봉건 왕국들이 바다로 진출함에 따라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²⁷⁾ 둘째는 육상에서 확장성과를 연장하기 위해 바다로 확장하는 경우이다. 당나라 시대부터 해금조치가 내려진 15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서 나타난 바다로의 확장현상이다. 중국 내륙에서 농업생산량 증대와 상업 활성화가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 시장들과 연결되며 해상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졌다.²⁸⁾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째 경우가 집단 생존을 위한 “급박함”이 작용하는 반면, 둘째 경우는 육상에서 획득한 성

25)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서울: 군사연구, 2009), pp.170~181.

26) 렌즈 (1999), pp.210~236 당시 향신료 무역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안겨 주었다.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투르크계열 이슬람과 베네치아가 육상 및 지중해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공급이 여의치 않았다.

27) 모리스 (2013), pp.593~599.

28) 주경철 (2008), pp.7~15.

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생존을 위해 바다를 선택하는 급박함이 없기 때문에 육상의 정치상황이나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 언제든 바다로의 확장을 포기할 수 있다.²⁹⁾ 바다로의 확장이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의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확장이 지니는 정치·경제적 의미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바다를 선택한 배경은 전자에 가깝다.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육상으로 확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부(富)의 확장을 일구었다.

2. 모순 발생과 해결 : 승자연합의 가변성 수용

확장은 성공할 경우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내부 모순은 확장이 승자연합 구성원과 규모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확장이 성공할 경우에 두 가지 이유로 승자연합 규모는 확대한다. 첫째, 확장에 따라 통치지역이 넓어지고 집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각 지역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유력자들을 승자연합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확장 과정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세력들을 승자연합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수적으로 늘어난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확장을 추진하거나 확장된 영역 내에서 생산과 교환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추가적인 확장은 전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패배의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확장된 영역에서 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는 승자연합의 구성변화를 촉진한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품종개발, 토질개선, 저수지 및 운하건설, 수로 정비, 지리와 기후측정을 위한 천문 및 수학 등의 기술개발과 지식전파는 학자와 기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교환활동 활성화는 수송과 저장 수단, 판매망을 장악한 상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금융가, 도소매업자, 숙박업, 중개인,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용병의 출현은 필연적이다.³⁰⁾

29) 렌즈 (1999), pp.163~168. 가장 대표적 사례가 명나라 정화의 7차 원정 이후 취해진 해금정책이다.
30) 예코 (2010), pp.302~315.

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는 지도자와 승자연합에게 세수증대의 효과와 더불어 두 가지 문제를 안겨준다. 첫째, 생산증대와 교환활동의 활성화로 상업세력에게 부(富)가 집중된다. 집단 지도자는 영역확장에 따라 규모가 커진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사적재를 제공하고 그 외 다수 구성원들에 대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업세력의 대부에 의존해야 한다. 이들을 승자연합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³¹⁾ 따라서 세수증대와 대부를 위해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가 권력유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교환은 영역 내에서 뿐 아니라 영역이외 집단들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 활성화는 외부세력의 침투를 허용한다.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들은 교역에 동반하여 문화와 가치, 종교를 유입시킨다. 교역은 개방이고 개방은 문화와 가치의 충돌로 이어진다. 지도자는 권력유지를 위해 이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

확장은 외부압력의 증가도 초래한다. 영역 확장으로 타 집단들과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도자는 권력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을 제공해야 한다. 접촉 면적이 넓어진 공간들로 인해 더 많은 군대와 관료가 필요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접촉면 인근의 외부 집단들에 의한 침략과 약탈뿐 아니라, 접촉면 너머에 존재하는 외부 집단들의 침략과 약탈 행위가 연쇄적으로 “이주”라는 문제를 유발한다. 외부 집단들이 “치고 빠지기”의 능력을 지닌 기마 집단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역 내 모든 생산과 교역, 교통요충지에 군대를 고정적으로 주둔시켜 놓거나, 값비싼 기마 군대를 창설하여 기동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 양 선택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중국 주변 이민족들이 모두 기마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의 역할은 장성 자체에 병력을 배치하여 침략을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으로 말(馬)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기마 집단들의 이동과 공격로를 특정 통로로 제한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만리장성은 방어 병력의 집중과 배치 문제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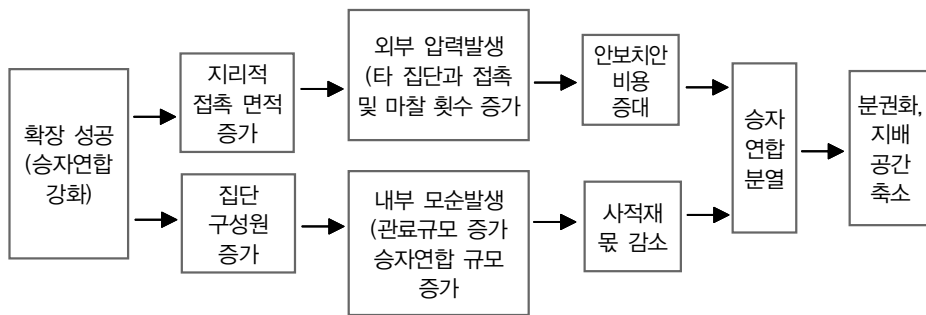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의 중첩적 작용은 확장된 영역을 유지함으로써 발생

31) 박상섭 (1996), pp.90~96.

32) 모리스 (2015), pp.186~187.

하는 이득보다 비용을 더 증가시킨다.³³⁾ 이는 공공재와 사적재 공급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도자의 정치생명을 위협한다. 이득을 증가시킬 획기적인 계기 -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생산량 증대 - 또는 비용을 감소시킬 획기적인 계기 - 대포와 기관총 - 는 근대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대포의 출현도 청동 주조물 값이 군인 머리수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로 비쌌기에 제련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림 4〉 확장 성공과 승자연합 유지의 모순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황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세금을 올려서 관료와 군대를 보강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내부 봉기와 반란은 필연적이다. 둘째, 집단 영역을 잘게 나누어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세금징수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합의된 의무조항과 조건 하에서만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 첫번째 방법보다 덜 위험하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³⁴⁾ 다만, 직접 통치하는 경우보다 권위가 약화되며, 역내 교환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을 위임받은 각 영역의 주권자들은 독립적인 자세와 법규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역 간 교환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한다. 경제는 토지에 주로 의존하게 되며 영역 간 비교우위에 의한 부(富)의

33) Robert Gilpin, *War and Change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10~14. 로버트 길핀은 확장에 따른 한계비용이 한계이득을 초과함에 따라 쇠퇴하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34) 모리스 (2013), pp.324~325. 모리스는 이를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고가전략과 봉건제에 의한 저가전략으로 구분했다.

창출은 제한된다. 5세기 로마멸망이후 15세기 대항해시대를 거쳐 18세기 근대 국가로 확립되기 전까지 유럽이 로마시대 수준의 사회발전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이다.³⁵⁾

농경시대가 시작된 이래 서양과 동양의 역사는 소규모 집단 간 전쟁으로 점철된 확장과 통합으로 제국이 탄생하고, 이후 분열로 전환되면서 각자도생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장과 통합으로 전환되며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으로 확장에 수반된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 그리고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집착과 욕심”이 결합하여 발생했음을 주장한다. 확장을 추구한 이유와 그 이후 의도하지 않게 분열로 전환된 궁극적 원인도 지도자와 승자연합의 권력유지 욕구이다. 현대시대 국가들은 역사에 등장했던 지도자들과 승자연합들이 확장에 따른 이득을 향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치들과 통치 기교들을 물려받았다. 압피아 가도, 저수지, 대규모 운하와 수로, 역참제도 등 인프라부터 봉토, 호민관, 원로원, 의회, 추밀원, 교구제, 과거제, 순환보직, 주식회사, 국유은행, 자치제, 조합 등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노력들이 지향했던 바는 권력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분권화되고 위임된 권력이 핵심부를 넘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권력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생산과 교환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권력의 분권화와 위임은 불가피 했다. 그러나 권력의 분권화와 위임은 집단내부에 지도자를 대체하는 잠재적 도전자를 양성하고 승자연합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확장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승자연합의 가변성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귀결된다. 왕족 귀족 등 소수로 구성된 승자연합에서 투표권을 가진 과반수 유권자로 승자연합 개념이 확대되어 온 역사는 경제활동의 자유보장과 사회적 역할 인정에 의한 “생산과 교환활동” 확대의 역사이다. 재원을 만들어 내어 세금을 납부하는 구성원들에게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나누어 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중세부터 근대사를 수놓은 수많은 반란과 혁명, 개혁을 거쳐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거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의회발달의 역사는 곧 승자연합이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역사이다.

승자연합 규모를 확대하고 구성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지도자와 기존 승

35) 모리스 (2013), ch 9. 사회발전지수의 모든 지표상 유럽은 18세기말이 되어야 중국의 사회발전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자연합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권력 축소 또는 포기이다.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단기적 집착과 욕심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음을 보여준다.

IV. 21세기 부(富)의 확장과 해군력의 역할

1. 21세기 확장 특징 : 물리적 공간 극복과 국내외 승자연합

21세기는 정치 민주화, 인구규모, 경제력, 과학기술 수준,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모든 지표상 수직에 가까운 급상승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확장 목적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고, 생존과 번영이 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로 이루어진다는 본질은 시대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 걸맞게 그것을 달성하는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은 모두 실패했다.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실패했다. 그 대신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처럼 교역이 부(富)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공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부의 확장과 관련한 21세기 물리적 공간의 특징은 “거리 단축”이다. 과학기술 발달 덕분에 지리가 부과하는 장애 - 거리에 비례하는 항해 위험, 소요 시간, 수송 및 무력투사 제한 등 - 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거리와 통제는 반비례 관계였다.³⁶⁾ 거리단축은 통제 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확장하는 거리에 반비례하여 중앙의 통제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권한 위임에 의거한 통치가 불가피하였다. 확장에 따른 통제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확획득의 방법과 처리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과 현지 감시가 가능해졌다. “거리 단축”과 더불어 특정 지리 또는 위치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는 확장 - 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 - 에 의해 계속 재평가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중동지역이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유는 생산 및 교환활동에서 “원유”가 차지

36)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70~72. Lemke는 거리에 따른 국력 감쇄율을 적용하여 투사 가능한 국력 산출 공식을 고안했다.

하는 의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천연가스가 그 자리를 점차 대신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재평가 될 것이다.³⁷⁾

생산증대 측면에서 21세기에 각 주권국가들이 추구하는 확장 형태는 생산 요소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제 분업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개념창조와 설계, 첨단 기술개발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몫이며 생산은 토지와 노동비용에 비교우위를 지닌 그 외 국가들의 몫이다. 21세기 환경에서 생산측면이 지니는 핵심은 “에너지”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떠받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환활동 측면에서 교환의 규모, 즉 세계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수송수단 발달,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을 자체가 마이너스로 회귀하지 않는 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21세기 교환활동에서 핵심은 금과 은이 아니라 미국 달러가 교환 매개체로 확고부동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금과 은의 공급량이 그러했듯이 달러의 공급량에 따라 세계 무역 및 투자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위축된다.³⁸⁾

에너지 개발은 대규모 자본동원 능력을 지닌 미국의 민간기업들이 지분을 통해 장악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가격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선물시장과 달러 공급량을 통해 조절한다. 달러는 오직 미국 연방준비은행만이 발행하고 공급한다. “에너지”와 “달러”는 21세기에서 확장의 의미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두 가지는 과거 농산물, 금과 은, 향신료의 21세기 부활이다. 오늘날 생산과 교환활동은 이 두 가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유지나 교역지를 점유할 필요 없이 확장의 열매를 취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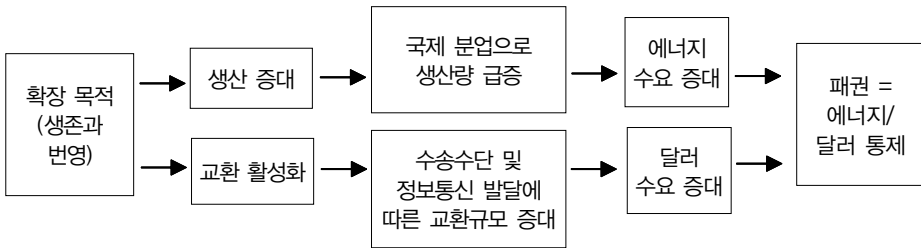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의 확장은 국내과정과 국제과정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도로·항만·철도·공항·발전소·통신망 등 인프라 건설 및 교체, 산업구조 개선, 도시화 과정으로 점과 점의 연결, 면의 성립을 이루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다자 또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지역별 경제 및 정치통합, 지역 안보기구, 다자 또는 양자 군사동맹을 통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이들을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상품과 서비스, 안

37) 대니엘 예긴(Daniel Yergin) (저), 이경남(옮김), 『2030 에너지 전쟁』 (서울: 사피엔스21, 2013), pp.55~60, 406~417.

38) 임형록,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 (서울: 새빛, 2013), pp.137~161.

보우산과 정치 후원으로 지역 블록이라는 면을 구성 한다. 또한, 상품 자체의 비교우위 뿐 아니라 “상품의 질”이라는 자본주의 요소가 면 위에 면을 쌓는 중첩적인 확장을 가능케 한다. 즉, 한 종류의 상품이 “질의 수준”에 의해 여러 개의 시장을 창출한다. 서로 다른 질을 지닌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과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점과 점을 연결하고, 연결된 선을 연장하거나 분파하여 또 다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국제 생산과 소비라는 면을 형성한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생산 분업과 교환활동을 안정시키고, 이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인 - 에너지와 달러 - 의 흐름을 통제하는 무력수단이다.

〈그림 5〉 21세기의 확장 형태와 패권



확장과 관련한 21세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승자연합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국제 승자연합의 출현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승자연합 규모는 생산과 교역활동 증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국제 분업이 확산되고 시장경제 가치 - 개인과 기업의 자유, 국가 역할 최소화 - 가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각 국가내부에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지도자와 승자연합이 독점했던 정보생산과 배분의 정보통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베트남 전쟁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영상으로 중계된 전쟁이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사실이 아니라 시각으로 확인하는 사실들은 당사자들에게 행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속고를 유발한다.

국내 승자연합 규모가 커졌다는 말은 곧 “집단 구성원의 사람값”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정보 생산과 접근, 공유와 전파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 탄생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통치자들에 대해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진 특정 가치 강요, 일방적 교육 및 종교에 의한 세뇌, 무관심, 분열에 기대어 통치한다는 명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납세와 병역

의무를 담당하는 이들 피통치자들의 동의 없이 지도자와 승자연합 이익을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 승자연합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후 냉전을 통해 강화되었다. 절대주권 개념에 근거한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승자연합이 강제하는 규약과 규범을 준수하며 확장을 추구하는 시기로 전환되었다. 인류역사에서 미국처럼 하나의 정치집단이 여타 정치집단을 주도하여 국제적인 승자연합을 구축한 유사사례는 드물지 않다.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 프랑크 왕국 및 신성로마제국 휘하의 봉건영주 집단, 동아시아의 중화 중심질서가 대표적이다. 교황청은 각 지역 주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프랑크 왕국과 신성로마제국은 계약에 의해 봉건 제후국들의 충성을 담보하였다. 중국은 조공체제로 주변 정치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모두 종교나 권한위임에 의해 성립된 연합체이다. 종교·사법·행정·군사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금지하는 절대 주권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적인 승자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나토와 세계은행 설립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만족하는 승자연합 국가들과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질서를 변경하려는 불만족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³⁹⁾ 국제 승자연합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창출하는 이익들을 공유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러나 유엔이나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승자연합의 명칭과 회원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국제 승자연합은 관념상의 실체일 뿐이므로 특정 국가가 국제 승자연합에 속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오로지 미국이라는 국가와의 정치·경제·군사적 밀착 수준에 따라 “인지”만 되고 있을 뿐이다. 굳이 기준을 설정한다면 미국과 어떤 종류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가 여부, 즉 동맹의 수준-집단안보 또는 양자동맹, 협의동맹, 중립약속-에 따라 확인할 수도 있다.⁴⁰⁾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공식 동맹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자연합 내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규모, 양자 자유무역협정 조건 등을

39) J. David Singer and Paul F. Diehl, *Measuring the Correlates of War*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pp.163~165.

40) 함정은 예나 지금이나 기동성, 지속성, 융통성, 현시성, 투사성의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해군기본교리』(해군본부, 2017) 함정은 바다와 접한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고(기동성), 오랜 기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으며(지속성), 전쟁·분쟁·외교·상업·문화전파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융통성), 영향력 행사를 위해 훈련 무력시위 등 현시를 할 수 있으며(현시성), 유사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투사성)

근거로 승자연합 소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승자연합과 마찬가지로 국제 승자연합에서도 승자연합 내 지위, 즉 미국(지도자)과 밀착 수준에 따라 승자연합내 차별화된 위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적재(안보 및 무역 특혜) 수준이 달라진다. 군사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함께 행사하며, 핵무기를 사고파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서 정책 조율 수준을 살펴보면 승자연합 내 위상을 도출할 수 있다.

21세기의 확장은 승자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고 상품과 서비스로서 “생산과 교환활동”의 경쟁을 펼치는 형태이다. 물리적 공간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헌장, 나토 협정, WTO 협정, 그리고 무수한 다자 및 양자 협정 등 국제규약과 규범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공간이다. 국경선이라는 물리적 장애가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국제규약과 규범에 의해 극복한다. 물리적 장애에 관계없이 정보를 생산, 공유, 전파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국제규약과 규범의 실행과 감시, 유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군사력은 불만족 국가들에 의한 질서변경을 차단하고 현재의 확장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물리적 수단이다.

2. 해군력의 역할 : 승자연합 강화와 비(非)승자연합에 대한 접근

21세기 확장 형태에서 군사력은 “싸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싸우지 않기 위한 수단”, 즉 전쟁 발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사력은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포장되어야 국내 및 국제 승자연합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력 구축은 승자연합 내에서부터 견제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테러 단체나 북한과 같은 일부 불만족 국가들을 제외하고 군사력의 역할이 “억제와 현상유지”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1세기 승자연합 국가들이 추구하는 확장은 유리한 생산 및 교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장이므로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압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둘째, 미국과 나토, 미국과 양자 군사동맹국들 등 승자연합 구성 국가들의 총체적 국력이 불만족 국가들 보다 명백하게 우월하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북한·시리아·이

란 등 불만족 국가들 간에는 단합된 행동을 이끌어 낼만한 구심점이 없다. 또한, 중국·인도·파키스탄·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승자연합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편승하여 과실을 공유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비용 대 편익 상 전쟁이 지닌 효용은 줄어들고 있다.

억제가 주 임무로 자리매김하는 21세기 환경에서 대한민국 해군력은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의 당면한 위협들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임무에 부가하여 국익 확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정책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 승자연합 강화에 기여하는 확산 정책이다. 유엔 결의안이나 다국적 결의에 동참하여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해군력은 다른 군종에 비해 파병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낮으며 상황전개에 따라 개입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냉전종식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강도 분쟁과 테러 사태에 대응하여 필요한 전력을 투사하고 작전지속을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과 2014년 리비아 사태시 교민철수 지원, 2015년 예멘 사태시 현지 대사관 철수 및 청해부대 왕건함 함상에서 임시공관 개소 등은 해군력이 지닌 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투사성을 증명해 주었다.⁴¹⁾ 국제 승자연합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승자연합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결정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진다.

국제 승자연합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정책은 방위산업 협력이다. 군사과학 기술공유, 공동 연구개발, 공동판매는 승자연합 내 위상을 가능케 하는 척도이다.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서 첨단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력의 상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방산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군사과학 기술에 의한 정밀유도 무기체계 발달은 공격력의 상대적 비용을 낮추어 가는 반면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⁴²⁾ 육지와 근접한 해역에서의 작전은 함정 기동성이 지니는 이점을 상쇄한다. 정밀유도 무기체계가 지배하는 전장 환경에서 함정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함정의 능력뿐 아니라 다수 함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된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이러한 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방산선진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산협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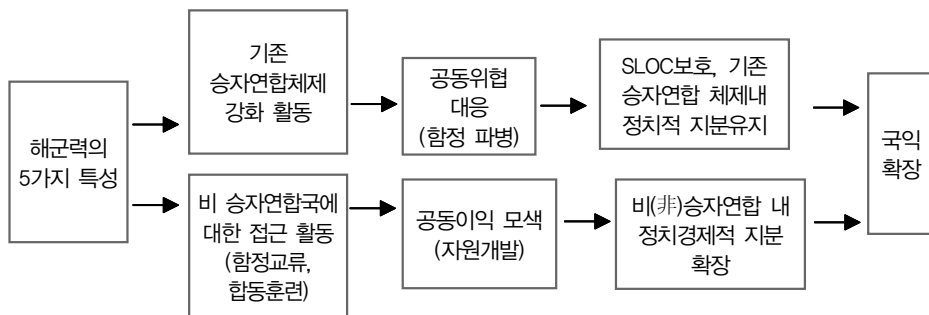
41) George and Meredith Friedman,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6), pp.113~117, 282~298.

42) 공급가격의 변동성은 달러패권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양적완화와 축소 등 달러변동성이 높을수록 공급가격의 변동위험성은 높아간다. 오정석 “美 달러화 움직임에 알아야 국제유가가 보인다.” 『국제금융』12호(2012), pp.12~16,
; 오정석·김권식 “국제유가 vs 美 달러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국제금융연구원, 2014.12).

는 승자연합 내 미국을 위시한 핵심국가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묵시적 양해사항”이 존재한다.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상용 제품에서 후발주자의 기술추월과 시장잠식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첨단 군사과학 기술에 대한 침해는 승자연합의 기득국들이 용인하지 않는 영역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용 기술과 재원의 제한, 경제성의 문제로 인해 첨단장비에 대한 독자개발은 한계가 있다. 방산에서의 무리한 확장은 국제 승자연합 내 위상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분업에 근거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에 대한 확장 정책이다. 냉전종식 이후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하면서 정치에서는 반(反)승자연합, 경제에서는 비(非)승자연합에 가까운 경향을 노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생산과 교환활동의 확장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밀착을 강화하여 왔다. 승자연합 국가들과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을 묶어주는 국제 분업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시켜 주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는 미국 달러 공급량 조정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대, 미국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 성장의 굴곡에 따른 절대 수요량의 변동성 등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문제는 1970년대 석유위기처럼 급작스러운 공급차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위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는 문제이다.⁴³⁾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공급 가격유지를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가격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림 6〉 해군력을 이용한 확장 전략



43) “일본-러시아, 영토협상 진전 없어도 1조원 투자기금은 조성,” 『연합뉴스』, (2016.11.22).

역사적으로 해군력이 확장의 전초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듯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한 전초 수단으로서 함정에 의한 군사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이 높다. 러시아극동지역은 우리 주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장이 가장 미치지 못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 제재로 인해 동방에서 중국과 에너지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방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베리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⁴⁴⁾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천연가스와 석유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극동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와 에너지 협력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키면서 러시아를 한반도 이해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북한 문제로 인해 북한 내륙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렵다면 발틱해 송유관처럼 동해안 해저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저에 설치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처럼 임의로 파이프라인을 차단할 위험성은 없어진다. 이러한 우리의 확장을 러시아가 수용하기까지 정치적 교섭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군의 활동은 시베리아 진출의 정치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해군력은 시베리아와 북극해 자원 공동개발, 북극항로 개척의 전초 수단으로서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기에 적합하다. 단기적으로 러시아 해군과 공동으로 해상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북극해 시범항해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시베리아와 북극해 진출에 발맞추어 동 지역 항구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유사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베리아로의 확장과 한반도 송유관이 설치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의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V. 결론

가 글은 부(富)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집단의 형성과 확대, 절정 후 쇠퇴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또한, 확장 수단으로서 해양력이 가능했던 배경

44) 2006년과 2009년에 우크라이나의 가스통과료 인상과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공급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유럽으로 이송되는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등 3개 CIS 국가를 우회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북부회랑 천연가스관(Northern stream) 남부회랑 천연가스관(Southern stream), 남색회랑 천연가스관(Blue stream), 발틱해 해저수송시스템을 건설하였다. 이재호, 『에너지 정치경제학』 (서울: 석탑출판, 2013), pp.165~166.

을 육상에서의 여건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집단을 형성하고 확장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다. 확장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의지를 타 집단에게 관철하는 활동이다. 인간은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구조 문제와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원을 획득해야 한다. 부(富)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집단형성에 따른 권력구조와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 “확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부, 어떠한 권력구조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경로로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역사는 단순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시기별로, 정치단위체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의 복잡성을 떨쳐버리고자 지도자 개인 선호를 확장 원인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이론을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확장”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임을 주장한다. 권력구조 문제는 승자연합 형성에 따라 발생한다. 승자연합은 집단의 지도자를 창출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능력이나 권한을 지닌 기득권 집단이다. 지도자의 권력은 승자연합이 원하는 특정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부(富)의 확장은 집단에 내재된 요인 - 승자연합 유지를 위한 공공재와 사적재 공급 문제 - 과 예상하지 못한 외재요인 - 기후변화, 역병, 이주, 침략 등 - 에 맞서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위이다.

집단은 기동력을 지닌 수단을 통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의 형성과 보호, 그리고 다른 점으로 연결과 선의 중첩을 통해 정치적 통제력이 미치는 면을 형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하지만 확장이 일단락 된 후에는 생산증대와 교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전략은 경제발전을 통한 자원을 획득 유지함으로써 지도자와 승자연합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부(富)의 확장은 그 자체로 지도자와 승자연합을 변경시키는 요인을 품고 있다. 무력에 의한 확장뿐 아니라 확장 이후 부(富)를 창출하는 생산증대와 교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역 확장에 따라 증가된 인구와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구성원들을 통치해야 한다. 지도자의 권력유지를 위해 승자연합 규모의 확대와 구성원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해양력은 확장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특정한 지리의 이점을 발견하면서 등장하였다. 특정한 상황은 곧 육상에서 확장을 위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장이 여의치 않아서 부(富)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 확장

은 거리에 따른 투사능력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토정복보다는 교역지(점) 확보와 교역로(선) 보호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15세기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진출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 지역들을 연결하며 상품을 교역하는 면을 형성하였다. 해양력에 의한 확장은 육상에서 확장과 마찬가지로 승자연합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촉진한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활성화 될수록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권한은 커져가며 승자연합 규모는 확대된다.

21세기에도 확장의 목적은 변함없다. 그러나 그 형태는 범세계적인 국제 분업과 정보화 기술로 인해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라는 요소에 의해 기존의 면 위에 새로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과 면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제적인 승자연합이 형성되어 공동의 이익관념 하에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확장에서 핵심은 에너지와 달러 패권이다.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21세기 부(富)의 확장이다.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해군력은 국제 승자연합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물리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에너지 확보를 위해 비(非)국제승자연합 국가들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범세계적인 생산과 교환활동은 승자연합의 권력구조와 해군력의 활동 영역을 연결시켜 준다. 해군력 운용 전략은 국제 승자연합 및 국내 승자연합 구조에 걸맞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 데이비드 렌즈 저, 안진환·최소영 옮김, 『국가의 부와 빈곤』 (서울: 한국경제신문, 1999).
- 데이비드 아블라피아 저, 이순호 옮김,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년의 문명사』 (서울: 책과 함께, 2011)
- 다니엘 예긴 저, 이경남 옮김, 『2030 에너지 전쟁』 (사피엔스21, 2013).
- 마이클 하워드 저, 안두환 옮김, 『유럽사 속의 전쟁』 (서울: 글항아리, 2015).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출판, 1996).
- 안재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서울: 나남, 2013).
-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저,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2010).
- 오정석, “美 달러화 움직임을 알아야 국제유가가 보인다,” 『국제금융』12호(2012).
- 오정석·김권식, “국제유가 vs 美 달러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2014.12). 국제금융연구원.
- 움베르토 에코 저, 김효정·최병진 옮김, 『중세1』 (서울: 시공사, 2010).
- 이언 모리스 저, 최파일 옮김,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서울: 글항아리, 2013).
- 이언 모리스 저, 김필규 옮김, 『전쟁의 역설』 (서울: 지식의 날개, 2015).
- 이재호, 『에너지 정치경제학』 (서울 : 석탑출판, 2013).
- 임형록,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 (서울 : 새빛, 2013).
- 페르디난트 자임트 저, 차용구 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서울: 현실문화, 2013).
-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1999).
-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서울: 군사연구, 2009).
-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 “일본-러시아, 영토협상 진전 없어도 1조원 투자기금은 조성,” 『연합뉴스』, (2016.11.22).
- 『해군기본교리』 (해군본부, 2017).

2. 영문 자료

- Bruce Bueno de Mesquita and Randolph Silverson, “War and the Survival of Political Leader: A Contemporary Study of Regime Type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1995).

- Bruce Bueno de Mesquita,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NY: Hoover Institution, 2003).
-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George and Meredith Friedman,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6).
- Jacek Kugler, *Power Transitions: Strategic Policies for the 21th Century* (Seven Bridges Press, 2000).
- J. David Singer and Paul F. Diehl, *Measuring the Correlates of Wa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orton Company LT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John R Weeks, *Population* (Wadsworth Publishing, 1996).
- Robert Gilpin, *War and Change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Sachs, Jeffrey D. and Warner Andrew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398* (1995);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no. 4 (2001).

Abstract

Winning Coalition, Expansion of Wealth, and Naval Power

Park Ju-Hyeon*

Human history shows diverse strategi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expansion of wealth as a key to explain choice and behavior of political entities. American scholar, -Bruce Bueno de Mesquita-, offers theoretical grounds for this concept in that the cores of selectorate theory is settled. The political entity consists of two groups, -the winning coalition that has power to replace leader and non-winning coalition that has not. Leaders implement policies serving for the welfare of winning coalition in return for their loyalty. Both internal problem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and external ones of climate changes, epidemic disease, or invasion compel leader and winning coalition to adopt policies of expansion that they believe may lead to the acquisition of wealth needed to counter those problems. The process starts by occupying one spot where other entities reside and then connecting it to its own. The line between spots functions as a foothold to form a new line to other spots. By repeating this process, a space is created in which new laws and orders are instated. In the early stage of expansion, war is hardly avoidable. Once finished successfully, the political circumstance tilts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generate national revenues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of winning coalition. However, as scale of economic activities grows, so does political power of civic classes in production and trade. To gain financial support required to run the political entity, delegation of power or bestowing autonomy

* Active navy captain working as division chief in charge of developing doctrine at the ROK Naval Combat Development Command, ROK Navy HQs.

to non-winning coalition is inevitable. Thus, expansion is not the ultimate solution, only to prolong the political survival if succeed.

Maritime power came to attractive option when overland expansion had become obstructed. It offered much greater advantages in terms of political risks and financial burdens in exploring new regions of precious commodities than overland expansion. Each political entity around world have been,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connected by maritime means since 15th century. It is worthy of noting that land conditions propelled people out to sea.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created opportunities to exploit geographical position in pursuit of wealth. In the 21st century, we witness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that presides over the rules of expansion. Competing for market is synonymous to the expansion in this era, the cause and aim of it has not been changed though. Energy and dollars are key factors of expansion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No matter what the forms and conditions change, naval power is still the most relevant means for expansion as it retains unique characters of maneuver, flexibility, continuity, display and projection of power. The strategy for using naval power should be in line with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expansion: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making contribution to world order, and approaches to the non-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enhancing military diplomatic activities. The former will serve our share of winning coalition while the latter will open chances to acquire further prosperity.

Key Words : Winning Coalition, Expansion of Wealth, Maritime Power, Naval Power